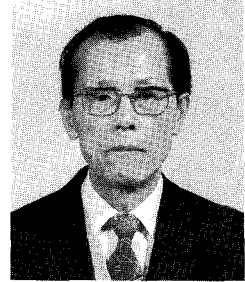


하이에나의 교훈



이 수 성

양육인이여!!

하이에나에게 배웁시다.

TV화면에서 사자가 7,8마리의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아 잡아서 먹고 있던 영양을 하이에나에게 빼앗기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힐금 돌아보면서 도망을 가고 하이에나들은 그 빼앗은 영양고기를 맛있게 뜯어 먹고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양육인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으로 인해 몇사람 안되는 사슴수입업자들에 의해 목이 바싹 졸려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이 광경을 보고 우리양육인의 어리석음에 새삼스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들 양육인은 저 하이에나보다 더 바보스럽고 무능한가 하고 말입니다.

조직의 힘, 단결의 힘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백수의 왕인 사자로부터 힘들여 잡은 먹이를 빼앗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어는 중어식하고 중어는 소어식하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물속의 고기나 정글이나 대초원의 동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사회경제생활에서 영락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양육인은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힘이 생기니까 말입니다. 남의 영분을 빼앗기위해서가 아니라 힘이 생겨야 우리의 영분을 지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래알처럼 단결력, 조직력이 없어 우리의 영분을 남에게, 그것도 대수롭지않은 남에게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나가면 조만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양육업은 어차피 망하고 만다는 것은 불을 보는거와 같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으면서 몸부림, 그것

도 살기위한 몸부림 한번 쳐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운명에 맡기고 죽는 날만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안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아니라 이웃인 동업자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해 봐야 합니다. 그것도 남의 것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것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것 내가 지키는데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내것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 있으면 전체양육인이 한테 뭉쳐야 합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뭉쳐서 조직을 구성하려면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협회(사단법인 한국양육협회)가 있으니 이 협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우리 양육인의 성열을 총집결시켜야 합니다. 앞에서 기술한바 「하이에나의 단결이 사자의 먹이를 빼앗을수 있다」는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기치를 높이 들고 협회로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조직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도 나도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 양육인들의 힘은 하늘을 찌르게 된다는 것을 부정할 자 누구이겠습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우리의 권익은 신장될 것이며 우리의 영분을 침범하는 자 없을 것이니 우리의 앞날에 찬란한 번창이 있을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기틀이 만들어진 협회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무엇을 했느냐?」

고 힐문하거나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전에 한가지 반문을 안해볼수 없습니다. 협회에 참여한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느냐고 말입니다. 너도 나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으니 발버둥만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 알맞은 표현이 될것입니다.

일만여명의 많은동업자들이 있으면서도 이와같은 빈약한 조직체밖에 못가졌다라는 사실을 세계 어디에가서 그 유례를 찾아보겠습니까. 경제행위에는 국경이 없어진 이판국에 이 무슨 창피한 몰골입니까. 이와같은 창피하고 가련한 처지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양육인의 잘못된 인식과 부족한 의식에서 협회참여를 외면했기 때문이며 다음원인은 참여한 회원들의 권리행사와 의무수행에 무성의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집행기관 의결기관을 구성하는 인선문제에 대해서 좀더 열성적으로 좀더 신중하게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데 협회의 운명 우리전체양육인의 운명을 결정지우게되는 이 중대한 인선문제를 그저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따라갈뿐이었으니 좋고 훌륭한사람이 선출될 턱이 없으며 좋고 훌륭한사람이 선출안되니 맥뭉추는 협회가 되는것은 필연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이에나보다 못한 우리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분연히 일어나 도장과 회비(오만원)를 가지고 협회(중앙회, 지회)로 달려갑시다.

그렇게 해야 급한문제해결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을 졸라 숨을 못쉬게 하는 사슴수입을 막아야 하는 방법이 우리 양육인누구에게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수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입사슴을 사지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입사슴을 사는 사람은 주로 기존양육인입니다. 다소간 값이 싸다는데 현혹되서 수입사슴을 사는데 돌아서면 자기 목을 졸리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모양이지요. 양육인 모두가 수입사슴불매운동에 동참하게되면 사슴수입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라 하겠습니까. 사슴이 수입되지 않으면 우리양육업계는 활기를 찾게되며, 활기를 찾게되면 백마리를 사육하는 너도, 3마리를 사육하는 나도 나름대로의 이득을 보게 될것이니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양육인 여러분의 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협회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좋은사람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 타인 혹은 대중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사람이라야 한다. 그래야 물심양면으로 희생을 무릎쓰고 전체양육인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니까 말입니다. 둘째,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강해야한다. 사육(감투육, 이권육)충족을 위해 협회를 그 무대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세째, 지성적인 사람이라야 한다. 우리의 할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하며 그일의 가치가 무엇인가 등을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협회의 영도자인 회장이 될사람은 위세가지외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앞장서서 방향을 밝히고 회원을 격려하고 조직(협회)을 앞에서 이끌고 나가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다음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통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협회구성의 일반원리와 원칙을 말했습니다. 규모가 적다는것 뿐이지 기틀은 제대로 짜여진 협회가 있으며 거기에다 신임회장의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 깃발아래로 모여서 아낌없이 정열을 쏟아봅시다.<사슴목장 녹원 대표>